

## 대학생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 현 속  
신흥대학 간호과

###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Regarding Sexual Activity in College Students

Hyeon-Suk Kim

*Department of Nursing, Shin Heung Colleg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college student sex behavior. The results can be used as the basis to establish health polices and a health promotion program to reduce the risks of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random selected from college students in Kyonggido. The 335 subjects were selected from 4 schools including three colleges and one university.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50 students, 335 of which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the 15 incomplete or inaccurate data). The study took place between December 7-19, 1998. Regarding the analysis method, the SPSS program was 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levant factors was identified through Chi-squared test.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follows: 1. Of the 335 respondents, thirty seven percent of men and ten percent of women had already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Significantly more males had experienced sexual experience than women. The majority of students, living with both their parents had less sexually experience than that living without their parents. There were religious differences, that students who believed in buddhism had more sexual experience than christian or catholic students. Students who reported drinking alcohol frequently had more sexual experience than those who didn't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chi^2=47.6$  df=4 p=0.000). 2. Sexual awareness was relatively low. High level group of sex knowledge were less sexual experience than middle or low level group ( $\chi^2=6.038$  df=2 p=0.049). Women were more sexually aware than men ( $\chi^2=20.814$  df=2 p=0.000). Groups who had sisters and brothers were more sexually aware than those who few sisters and brothers. 3. Sixty one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at chastity before marriage should be kept but twenty four percent of them felt that it was unnecessary. Opponents to chastity before marriage had more sex experience than those for.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chi^2=48.967$  df=2 p=0.000). Those who agreed with the questionnaire point 'Even if people are not married, if they love each other, they can have sexual intercourse.' had more sexual intercourse than those who didn't agree. Those who agreed with the questionnaire point 'Even though people doesn't like, they can still have sexual intercourse.' had more sexual intercourse than those who disagree. On this point, men were three times higher of the opinion than women. So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between men and women. As a result of this study, sexual awareness influence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ttitudes influence sexual behavior too. Also, one of the risks of sexual activity includes poor knowledge and uninformed attitudes about sex. Therefore sex education is neede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reestablish concepts about sex.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 대학생 집단의 연령은 19세에서 20세 중반까지로 대부분 20대 초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발달과정 상 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 초기에 속하는 시기이다. 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말이나 중학교 초기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체제는 대학에 와서야 비교적 자유로운 이성교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있어 성 문제는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대학생 집단의 성적 발달은 성인의 성적 성숙의 일차적 관문인 성적 동일성(sexual identity)을 확립해 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물학적인 성과 성 반응은 성숙되어 있지만 성적으로 성숙한 면을 심리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아직 미숙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과 사회의 성에 대한 개념(sexual concept)이 통제자로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 시기의 대학생은 사회적 독립, 이성과의 자유로운 교제, 직업선택, 경제적 자립, 종교 및 정치적 신념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재인식하고 통합하여 성인으로서의 자질과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성에 대해서도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성(sexuality)은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의하여 학습되며 표출된다. 이것은 인간의 성이 사회구조 속에서 창조되고 또한 통제되고 있으며, 성에 대한 규범과 가치체계는 그 사회의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 상황은 개방화, 국제화 시대이며,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향락 문화의 발달, 성의 상품화,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 서구식 사고방식의 유입,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성에 대한 노출, 바람직한 성교육의 부재 등이 성 의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증가시키고, 변화된 가치관은 이들에게 성과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인적 관계로서의 성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다. 개방된 성문화와 환경적 자극 등은 성에 대한 관심이나 충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지만 우리사회는 대학생의 성적 욕구의 직접적인 표현은 철저히 억제한다. 성 의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한편으로는 성에 반발하고 불안, 수치, 혐오의 감정을 가지며, 성적인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며 이성애에 냉담하다. 한편으로는 성충동의 무분별한 발산을 한다. 지금의 대학생은 성적으로는 성숙되었지만 성 행동은 억제된다. 성 능력은 있고 충동적 자극은 받으면서 이를 발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실업자(sexual unemployed person)이다(Jerslid, 1957). 그러므로 대리 만족이나 대상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반사회적인 탈선행위로도 나타나므로 적절한 성교육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 학교 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생의 경우는 실제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상황적으로 노출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은 낮은 편이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도 앞서가는 학생들의 의식을 쫓아가는 식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 경험 양상과 성 지식,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성행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 경험 양상과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성 지식의 정도에 따른 성 경험의 양상과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경험 유무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성 지식, 성에 대한 태도, 성행위에 대해 파악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성 지식 정도에 따른 성 경험 유무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경험 유무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생이며, 대상학교는 종합대학 1개교와 전문대학 3개교로 총 4개 대학 6개 학과를 임의 선정하여 총 3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12월 7일부터 12월19일 까지 13일간 이며, 자료수집은 자기 응답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였고, 대상자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지는 개인 봉투에 넣어 응답자가 직접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총 350부를 배부,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연구자료로 불충분한 15부를 제외한 335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11개 문항이며, 성 경험은 8문항, 성 지식은 10문항, 성 태도는 10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기존 성 지식, 성 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본인이 작성하였다.

성 지식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7015$ 이며, 타당성 검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 세 개가 구성요소로 산출되었다. 이는 임신과 정상생리, 피임방법, AIDS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분석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 경험, 성 지식, 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chi^2$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성 지식 수준은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지식 측정은 10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정답에 1점을 부여하여 10점 만점으로 하였다. 이를 총점의 평균과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총점이 7-10점은 상위군, 4-6점은 중위군, 0-3점은 하위군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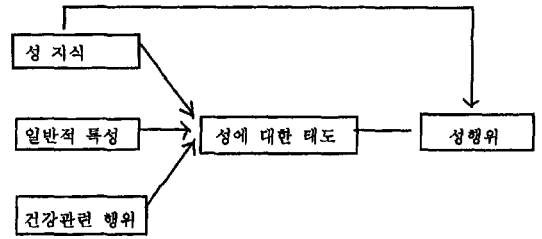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이론적 개념 틀.

### 3. 연구의 개념 틀

연구의 개념 틀은 Fishbein의 Theory of Reasoned Action(Karen Glanz, 1996)을 근간으로 하였다. 성 지식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행위가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태도가 성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들 성 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 성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성 지식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성과 관련된 건강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졸업 년도, 종교, 전공계열, 거주형태, 형제 수, 부모 직장 유무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관련행위는 음주습관과 음주 빈도, 약물남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에 대한 태도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성행위는 성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한다. 연구의 개념 틀은 그림 1과 같다.

## III. 본 론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에 대한 지식·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성별, 고등학교 졸업 년도, 종교, 전공계열, 거주형태, 형제의 수, 부모의 직장유무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201명 (60%), 남학생 134명(40%)이며, 고등학교 졸업 년도는 졸업 당해 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226명(67.5%)이었으며, 97년 졸업생이 55명(16.4%), 96년 졸업생은 21명(6.3%),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 이상인 학생이 33명(9.9%)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신자가 142명(42.4%), 천주교가 37명(11.0%), 불교 42명(12.5%),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기타포함)이 114명(34.4%)이었다.

전공은 문과 계열이 118명(35.2%), 이과 계열이 210명(62.7%), 예체능 계열은 7명(2.1%)이었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248명(74.0%),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는 87명(24.8%) 이었다. 본인을 포함한 형제의 수는 1명이 30명(9.0%), 2명이 148명(44.2%), 3명이 92명(27.5%), 4명 이상이 32명(9.6%), 5명 이상이 33명(9.9%)이었다.

부모의 직장여부는 부모 모두 직장이 있는 경우는 42.1%이며, 아버지만 있는 경우는 43.3%, 어머니만 있는 경우는 26명 7.8%, 두분 모두 없는 경우는 6.3%,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0.6%이었다.

평상시 음주 빈도는 월 1~2회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주 1회가 20.3%, 주2~3회가 14.3%, 거의 매일 마신다고 답변한 학생도 4.5% 였다. 그리고 전혀 마시지 못하는 경우는 9.9%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 빈도가 주 1회 이상인자가 39.1% 였다.

음주 습관은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경우는 7.3%, 조금 취할 때까지는 69.2%, 전혀 취하지 않도록 마시는 경우는 23.5%였다(표 1).

**2. 연구대상자의 성에 대한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 경험은 남자의 경우 37.3%이며 여자는 10.0%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chi^2 = 36.420$  df=1 p=0.000), 전체는 20.9%가 성 경험이 있었다. 최초 성 경험의 시기는 남자는 대학 재학 때에 40%, 고등학교 재학 때 28%이며, 여자의 경우는 각각 60%, 15%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합한 전체를 살펴보면 대학에 입학한 후 약 9개월 사이에 첫 성 경험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수생 일 때 27.2%, 고등학교 재학 때 25.7%, 중학교 재학 때는 1.4% 였다. 이 첫 성 경험의 시기는 향후 성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성 경험의 횟수는 남자의 경우 3-5회가 42%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1-2회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39.976$  df=4 p=0.000).

성 행위시 피임 실시 여부에 대해, 남자는 피임하는 경우가 20%, 거의 안함은 34%이며 경우에 따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가 46%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피임하지 않는다가 45%로 나타나 남녀간 유의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실수(%)
성별	남자	134(40.0)
	여자	201(60.0)
졸업년도 (고등학교)	98년	226(67.5)
	97년	55(16.4)
	96년	21( 6.3)
	95년이전	33( 9.9)
종교	기독교	142(42.4)
	천주교	37(11.0)
	불교	42(12.5)
	기타	114(34.0)
전공계열	문과계열	118(35.2)
	이과계열	210(62.7)
	예체능계열	7( 2.1)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248(74.0)
	부모와따로거주	87(24.8)
	부모사망	5( 1.5)
	이혼 및 별거	8( 2.4)
	편부 또는 편모	12( 3.6)
	본인의 학업	48(14.3)
	기타	14( 4.2)
형제 수	1명	30( 9.0)
	2명	148(44.2)
	3명	92(27.5)
	4명	32( 9.6)
	5명	33( 9.9)
부모 직장 유무 맞벌이	아버지만 있음	141(42.1)
	어머니만 있음	145(43.3)
	두분 모두 없음	26( 7.8)
	부모 사망	21( 6.3)
		2( 0.6)
음주빈도	거의 매일	15( 4.5)
	주2-3회	48(14.3)
	주1회	68(20.3)
	월1-2회	171(51.0)
	전혀마시지못함	33( 9.9)
음주습관	만취 할 때까지	22( 7.3)
	조금 취할 때까지	209(69.2)
	전혀 취하지 않음	71(23.5)
총 계		335(100.0)

차이를 보였다( $\chi^2 = 0.869$  df=2 p=0.648). 자위 경험은 전체 43.6%가 있다고 하였는데 남자는 86.6%가, 여자는 14.9%가 경험이 있다고 하여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167.828$  df=1 p=0.000). 자위 행위의 빈도는 남자의 경우 주 2-3회는 24.1%, 주

1회는 25%로 가장 높았다. 자위 행위에 대한 생각은 남자는 정상적인 행위이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69.4%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44.8%로 나타나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0.347$  df=3 p=0.000). 전체 학생의 24.5%는 자위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본인이나 친구가 임신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낙태수술을 한다는 경우가 남자는 47%, 여자는 63.2%였고, 낳아서 기르겠다는 남자 47.0%, 여자 31.8%로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chi^2=8.737$  df=2 p=0.013). 여자의 경우 '낙태수술을 하겠다'가 남자보다 높았고, 남자는 '낳아서 기르겠다'는 경우와 '낙태수술을 하겠다'가 동일하게 나왔다 (표 2).

**3. 성 경험과 대상자의 특성과의 관계**

고등학교 졸업 년도 별 성 경험은 남자의 경우 졸업한 기간이 오래 될 수록, 성 경험이 많았고, 여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졸업 년도에 따라 성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chi^2=8.38$  df=3

**표 2. 대상자의 성에 대한 특성**

특 성	구 분	남자(%)	여자(%)	전체(%)	유의성 검정
성경험	있다.	50(37.3)	20(10.0)	70(20.9)	$\chi^2=36.420$ df=1 p=0.000
	없다.	84(62.7)	181(90.0)	265(79.1)	
최초 성 경험 시기	중학교재학	0( 0.0)	1( 5.0)	1( 1.4)	p=0.131
	고등학교 재학	14(28.0)	4(20.0)	18(25.7)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 입학전	16(32.0)	3(15.0)	19(27.2)	
	대학1학년 재학	20(40.0)	12(60.0)	32(45.7)	
성 경험 횟수	0회	84(62.7)	181(90.0)	265(79.1)	$\chi^2=39.976$ df=4 p=0.000
	1-2회	11( 8.2)	9( 4.5)	20( 6.0)	
	3-5회	21(15.7)	7( 3.5)	28( 8.4)	
	5-10회	7( 5.2)	1( 0.5)	8( 2.4)	
	10회 이상	11( 8.2)	3( 1.5)	14( 4.2)	
피임 여부	거의 안함	17(34.0)	9(45.0)	26(37.1)	p=0.648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음	23(46.0)	7(35.0)	30(42.9)	
	피임 함	10(20.0)	4(20.0)	14(20.0)	
자위 경험	있다	116(86.6)	30(14.9)	146(43.6)	$\chi^2=167.828$ df=1 p=0.000
	없다	18(13.4)	171(85.1)	189(56.4)	
자위 행위 빈도	거의 매일	10( 8.6)	0( 0.0)	10( 6.8)	-
	주2-3회	28(24.1)	1( 3.4)	29(19.9)	
	주1회	29(25.0)	6(17.1)	35(24.0)	
	월2-3회	21(18.1)	6(22.2)	27(18.5)	
	월1회	6( 5.2)	0( 0.0)	6( 4.1)	
	거의 안함	22(18.6)	17(56.7)	39(26.7)	
자위행위에 대한 생각	불결	5( 3.7)	19(9.5)	24( 7.2)	$\chi^2=20.347$ df=3 p=0.000
	수치감	15(11.2)	41(21.4)	58(17.3)	
	정상행위(자연스러운 행위)	92(69.4)	90(44.8)	183(54.6)	
	아무 생각 없음	20(15.7)	54(24.4)	70(20.9)	
본인 또는 애인이 낙태수술 임신한 경우	낙태수술	63(47.0)	127(63.2)	190(56.7)	$\chi^2=8.737$ df=2 p=0.013
	낳아서 입양	8( 6.0)	10( 5.0)	18( 5.4)	
	낳아서 기름	63(47.0)	64(31.8)	127(37.9)	

† 실수(%), 전체%는 column %임

‡ 유의하지 않은 통계량은 p 값만 제시함

-  $\chi^2$ -test 결과 빈도수가 5 이하인 cell이 20% 이상이거나 cell내 빈도수가 0인 경우 적합한 검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음.

$p=0.039$ ), 여자는 졸업 년도 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로 보면 1998년 졸업자의 16.4%, 1997년 졸업자 32.7%, 1996년 졸업자 28.6%, 1995년 이전 졸업자 27.3%가 성 경험이 있었다.

종교별 성 경험은 불교 신자의 38.1%, 기독교 20.4%의 순서로 많았고, 천주교인 학생의 성 경험이 가장 적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9.53$   $df=3$   $p=0.023$ ). 남녀 모두 불교인 경우가 성 경험이 가장 높고, 여자는 천주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의 경우 성 경험이 없었다.

전공계열 별로는 예체능 계열이 가장 성 경험이 많았고(71.4%) 문과계열(26.3%), 이과계열(16.2%) 순서였다.

거주형태별 성 경험의 정도는 남자의 경우 부모와 거주하는 학생은 34.0%,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남자의 경우 50.0%가 성 경험이 있었고, 여자는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8.2%, 따로 거주하는 경우는 14.5%로 남녀 모두 부모와 따로 거주 할 수록 성 경험의 정도가 높았다.

부모 직장 여부와 성 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부모가 모두 직장이 있을 때 24.0%로 경험이 가장 적었고, 두분 중 한 분만 직장이 있는 경우는 아버지만 있는 경우는 비슷하였고, 아버지만 있는 경우는 43.5%, 어머니만 있는 경우는 45.5%, 두분 모두 없는 경우 100%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10.2$   $df=3$   $p=0.017$ ).

자위 경험이 있는 학생 일 수록 남녀 모두 성 경험이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40.5$   $df=1$   $p=0.000$ ). 남자는 86.6%가 자위행위 경험이 있었고, 여자는 14.9%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자위행위에 대한 생각은 남자와 여자 각각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7%와 9.5%, 수치감 11.2%와 21.4%, 자연스런 행위 69.4%와 44.8%로 남자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였으나, 여자는 불결하다거나 수치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남자보다 높았다고, 남녀간 자위행위에 대해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음주 빈도별 성 경험은 음주 빈도가 많을 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성 경험의 정도가 높았고, 이는 남자( $\chi^2=21.6$   $df=4$   $p=0.000$ )와 전체( $\chi^2=47.6$   $df=4$   $p=0.000$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여자는 유의하지 않았다.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성 경험이 높았다( $\chi^2=10.727$   $df=1$   $p=0.001$ ).

본인이나 애인이 임신했을 때 낙태에 대한 태도와 성 경험의 정도를 보면, 남자의 경우 낙태 수술을 한다고 한 경우(55.6%)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 경험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16.97$   $df=2$   $p=0.000$ ). 여자의 경우는 낙태를 하려는 생각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 경험이 높게 나왔다(표 3).

#### 4. 성에 대한 지식

연구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은 10개 문항으로 임신과 생리, 피임, AIDS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총 10개 문항 중 평균 45.8%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임신 기간중의 흡연은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매우 나쁜 영향이 있다는 문항이 94.0%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매독은 입맞춤에 의해서도 전염이 된다는 문항이 정답률 11.0%로 가장 낮았다(표 4).

#### 5. 성 지식 수준과 대상자 특성과의 관계

성 경험 유무와 성 지식과의 관계를 보면 남자는 성 지식의 상위군에서 성 경험의 정도가 10%로 가장 낮았고, 중위군은 58%, 하위군은 32%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상위군은 10%, 중위군은 75%, 하위군 15%로 남녀 모두 상위군에서 성 경험이 가장 낮았고, 중위군에서 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

성별로 보면, 남자 보다 여자가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았으며, 남자는 상위군이 10.4%이고 여자는 21.9%였으며, 중위군도 남자에 비해 지식 수준이 여자가 높았다. 하위군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20.814$   $df=2$   $p=0.000$ ).

종교 별 성 지식 정도를 보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의 경우 성 지식 수준의 상위군이 1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천주교가 13.5%, 불교 7.1%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13.244$   $df=6$   $p=0.039$ ). 이는 앞의 표 3에서 남자 중 성 경험이 많은 순서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서임을 고려하면 성 지식 정도와 성 경험과도 관련이 있어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성 경험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 할

표 3. 성 경험과 대상자의 특성과의 관계

특성\성 경험 유무\성별	남자		여자		전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졸업연도 (고등학교)	98년	27(30.3)	62(69.7)	10( 7.3)	127(92.7)	37(16.4)	189(83.6)
	97년	14(43.8)	18(56.3)	4(17.4)	19(82.6)	18(32.7)	37(67.3)
	96년	3(60.0)	2(40.0)	3(18.8)	13(81.3)	6(28.6)	15(71.4)
	95년이전	6(75.0)	2(25.0)	3(12.0)	22(88.0)	9(27.3)	24(72.7)
유의성검정	$\chi^2$ 값, p value		$\chi^2=8.38$ df=3 p=0.039		p=0.262		$\chi^2=9.02$ df=3 p=0.029
종교	기독교	17(32.1)	36(67.9)	12(13.5)	77(86.5)	29(20.4)	113(79.6)
	천주교	5(35.7)	9(64.3)	0(0.0)	23(100.0)	5(13.5)	32(86.5)
	불교	13(50.0)	13(50.0)	3(18.8)	13(81.3)	16(38.1)	26(61.9)
	기타	15(36.6)	26(63.4)	5(10.0)	68(93.2)	20(17.5)	94(82.5)
유의성검정	$\chi^2$ 값, p value		p=0.487		-		$\chi^2=9.53$ df=3 p=0.023
전공계열	문과계열	25(42.4)	34(57.6)	6(10.2)	53(89.8)	31(26.3)	87(73.7)
	이과계열	20(29.4)	48(70.6)	14( 9.9)	128(90.1)	34(16.2)	176(83.8)
	예체능계열	5(71.4)	2(28.6)	0( 0.0)	0( 0.0)	5(71.4)	2(28.6)
유의성검정	$\chi^2$ 값, p value		p=0.051		-		$\chi^2=15.7$ df=2 p=0.000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36(34.0)	70(66.0)	12(8.2)	134(91.8)	48(19.0)	204(81.0)
	부모와따로거주	14(50.0)	14(50.0)	8(14.5)	47(85.5)	22(26.5)	61(73.5)
유의성검정	$\chi^2$ 값, p value		p=0.091		p=0.142		$\chi^2=2.10$ df=1 p=0.099
부모 직장 여부	두분 모두 있다	12( 24.0)	38(76.0)	7( 7.7)	84(92.3)	19(13.5)	122(86.5)
	아버지만 있다	30( 43.5)	39(56.5)	9(11.8)	67(88.2)	39(26.9)	106(73.1)
	어머니만 있다	5( 45.5)	6(54.5)	1( 6.7)	14(93.3)	6(23.1)	20(76.9)
	두분 모두 없다	3(100.0)	0(0.0)	2(11.1)	16(88.9)	5(23.8)	16(76.2)
유의성검정	$\chi^2$ 값, p value		$\chi^2=10.2$ df=3 p=0.017		p=0.7951		$\chi^2=8.08$ df=3 p=0.044
자위 경험	있음	47(40.5)	69(59.5)	7(23.3)	23(76.7)	54(37.0)	92(63.0)
	없음	3(16.7)	15(83.3)	13( 7.6)	158(92.4)	16( 8.5)	173(91.5)
유의성검정	$\chi^2$ 값, p value		$\chi^2=3.79$ df=1 p=0.042		$\chi^2=7.05$ df=1 p=0.008		$\chi^2=40.5$ df=1 p=0.000
음주 빈도	거의 매일	10(76.9)	3(23.1)	1(50.0)	1(50.0)	11(73.3)	4(26.7)
	주 2-3회	15(53.6)	13(46.4)	4(20.0)	16(80.0)	19(39.6)	29(60.4)
	주 1회	15(40.5)	22(59.5)	2( 6.5)	29(93.5)	17(25.0)	51(75.0)
	월 1-2회	6(15.0)	34(85.0)	12( 9.2)	119(90.8)	18(10.5)	153(89.5)
	전혀 못함	4(25.0)	12(75.0)	1( 5.9)	16(94.1)	5(15.2)	28(84.8)
유의성검정	$\chi^2$ 값, p value		$\chi^2=21.6$ df=4 p=0.000		p=0.155		$\chi^2=47.6$ df=4 p=0.000
약물사용	있다	3(75.0)	1(25.0)	1(100.0)	0( 0.0)	4(80.0)	1(20.0)
	없다	47(36.2)	83(63.8)	19( 99.5)	200(95.5)	66(20.0)	264(80.0)
유의성검정	$\chi^2$ 값, p value		p=0.146		p=0.100		* $\chi^2=10.727$ df=1 p=0.001
본인 또는 애인이 낙태 수술을 한다 임신시에 낙태에 대한 태도	남아서 입양 시킴	35(55.6)	28(44.4)	16(12.6)	111(87.4)	51(26.8)	139(73.2)
	남아서 기른다	2(25.0)	6(75.0)	1(10.0)	9(90.9)	3(16.7)	15(83.3)
	남아서 기른다	13(20.6)	50(79.4)	3( 4.7)	61(95.3)	16(12.6)	111(87.4)
유의성검정	$\chi^2$ 값, p value		$\chi^2=16.97$ df=2 p=0.000		p=0.226		$\chi^2=9.55$ df=2 p=0.008
총 계		50(37.3)	84(62.7)	20(10.0)	84(90.0)	70(20.9)	265(79.1)

†실수(%)

‡음주 빈도와 부모 직장여부에 대한 총계는 결측치 처리로 인해 총합이 일치하지 않음

\*Fisher's Exact Test값임

-  $\chi^2$ -test 결과 빈도수가 5 이하인 cell이 20% 이상이거나 cell내 빈도수가 0인 경우 적합한 검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음.

표 4. 성에 대한 지식

내 용	정 답	
	실수	%
성교시 콘돔착용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완 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	142	42.4
남성이 영구 피임을 위해 정관수술을 하면 성욕이 저하된다.	95	28.4
성교직전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므로써 피 임을 할 수 있다.	144	43.0
AIDS 감염자도 정상인과 같이 건강하게 보일 수 있다.	201	60.0
여성의 임신기간은 1개월에 8-9일이다.	119	35.5
성교시 질의 사정으로 임신을 피할 수 있	151	45.1
임신기간중의 흡연은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매우 나쁜 영향이 있다.	315	94.0
여성의 가임 기간은 280일 정도이다.	232	69.3
매독은 입맞춤에 의해서도 전염이 된다.	37	11.0
성교직후에 질 좌약을 질 내에 삽입하면 피 임이 된다.	97	29.0
계	1533	45.8

수 있다.

전공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이 성에 대한 지식 수 준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문과계열이고, 이과계열 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보다 부모와 떨어져 파 로 거주하는 경우가 성 지식의 상위군이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7.442$  df=2 p=0.024).

형제수 별 성 지식 정도를 보면, 형제가 네명 내지 다섯명인 경우가 가장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았고, 한명이나 둘인 경우가 지식 수준이 낮은 하위군이 많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16.559$  df= 8 p=0.035). 그외 다른 변수는 성 지식 수준과 유의 하지 않았다(표 5).

**6. 성 경험 유무와 성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성 경험 유무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보 면, 전체 61.1%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하였고, 23.6%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 문 항에 반대하는 경우에 남녀 모두 성 경험이 많았고(남 자: 63.9%, 여자: 29.3%),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 의하였다( $\chi^2=48.967$  df=2 p=0.000).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할 가능성이 낮아도 성교 할 수 있다는 항목에 찬성 할 수록 남녀 모두 성 경험 이 많았고(남자: 47.7%, 여자: 21.5%),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chi^2=52.718$  df=2 p=0.000).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교 할 수 있다는 항목에 찬성 할 수록, 남녀 모두 성 경험이 많 았고(남자: 50.0%, 여자: 15.4%)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chi^2=52.718$  df=2 p=0.000). 특히 남자가 여자 보다 세배 이상 높아 남녀간에 성교에 대한 감정의 차 이를 보였다. 미혼모가 임신 할 경우 그 남자와 만드 시 결혼해야 한다는 항목에 반대 할 수록 성 경험이 많았고 이는 남녀 모두 비슷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미혼모가 임신을 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 도움 을 청해야 한다는 항목에 반대 할 수록 남녀 모두 성 경험이 많았고(남자: 71.4%, 여자: 23.5%), 찬성하 는 경우 성 경험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chi^2=26.369$  df=2 p=0.000).

피임을 할 수 없다면 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 목에 찬성 할 수록 성 경험이 적고(남자: 27.0%, 여 자: 4.2%)로, 반대 할 수록 성 경험이 많았으며(남 자: 58.7%, 여자: 26.9%),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 의하였다( $\chi^2=45.115$  df=2 p=0.000).

직업여성의 윤락행위가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항목 에 찬성 할 수록 남녀 모두 성 경험은 많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병에 감염된 친구와는 완 치 때까지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할 수록 성 경 험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미 혼 남녀가 장기간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항목에 반대 할 수록 성 경험이 많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IV. 고 찰**

성에 관련된 성 경험과 성 지식 수준 및 성 지식 습 득 경로, 성에 대한 태도와 특히 혼전순결에 대한 태 도, 성교육 요구 내용 , 성교육 평가, 성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성 경험**

본 연구대상자의 성교 경험은 남학생은 37.3%, 여



표 5. 성 지식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특성\성지식 정도	성지식 정도			전 체	
	상위군	중위군	하위군		
성경험 유무	남자 있다	5(10.0)	29(58.0)	16(32.0)	50( 37.3)
	남자 없다	9(10.7)	31(36.9)	44(52.4)	84( 62.7)
	$\chi^2$ 값, p value	$\chi^2=6.038$ df=2 p=0.049			134(100.0)
유의성검정	여자 있다	2(10.0)	15(75.0)	3(15.0)	20( 10.0)
	여자 없다	42(23.2)	3(15.0)	42(23.2)	181( 90.0)
	$\chi^2$ 값, p value	p=0.178			201(100.0)
성별	남자	14(10.4)	60(44.8)	60(44.8)	134( 40.0)
	여자	44(21.9)	112(55.7)	45(22.4)	201( 60.0)
	$\chi^2$ 값, p value	$\chi^2=20.814$ df=2 p=0.000			335(100.0)
종교	기독교	27(19.0)	74(52.1)	41(28.9)	142( 42.4)
	천주교	5(13.5)	18(48.6)	14(37.8)	37( 11.0)
	불교	3( 7.1)	31(73.8)	8(19.0)	42( 12.5)
	기타	23(20.2)	49(43.0)	42(36.8)	114( 34.0)
	$\chi^2$ 값, p value	$\chi^2=13.244$ df=6 p=0.039			335(100.0)
전공계열	문과계열	14(11.9)	54(45.8)	50(42.4)	118( 35.2)
	이과계열	44(21.0)	114(54.3)	52(24.8)	210( 62.7)
	예체능계열	0( 0.0)	4(57.1)	3(42.9)	7( 2.1)
	$\chi^2$ 값, p value	-			335(100.0)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38(15.1)	126(50.0)	88(34.9)	252( 75.2)
	부모와따로거주	20(24.1)	46(55.4)	17(20.5)	83( 24.8)
	$\chi^2$ 값, p value	$\chi^2=7.442$ df=2 p=0.024			335(100.0)
형제 수	1명	4(13.3)	13(43.3)	13(43.3)	30( 9.0)
	2명	25(16.9)	69(46.6)	54(36.5)	148( 44.2)
	3명	13(14.1)	57(62.0)	22(23.9)	92( 27.5)
	4명	8(25.0)	12(37.5)	12(37.5)	32( 9.6)
	5명	8(24.2)	21(63.6)	4(12.1)	33( 9.9)
	$\chi^2$ 값, p value	$\chi^2=16.559$ df=8 p=0.035			335(100.0)
총 계	58(17.3)	172(51.3)	105(31.3)	335(100.0)	

† 수(%), 전체의 퍼센트는 column %임

-  $\chi^2$ -test 결과 빈도수가 5 이하인 cell이 20% 이상이거나 cell내 빈도수가 0인 경우 적합한 검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음.

학생은 10.0%로 전체의 20.9%가 경험이 있었다. 이는 1학년 대학생의 성 경험이 16.22%라고 한 성(1996)의 연구보다 4.7%가 높게 나타났으며, 김(1993)의 연구보다는 5.7% 낮았고, 류(1995)의 연구 결과보다 9.7% 높았다, 구(1997)의 결과보다는 18% 높았고, 김(1994)의 근로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한 50%(남자:78.1, 여자: 21.6)보다 낮았다.

김(1993)의 연구에서는 성교 경험이 전체의 31.7%로 남학생 43.7%, 여학생 7.0%로 남녀간 차이가 많

았으며, 키스경험은 49.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1995)는 연구대상 전체의 27.6%가 성교경험이 있었고, 남학생은 40.4%, 여학생은 14.7%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교 경험률은 증가하였다.

구(1997)의 연구에서 성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18%였고 남학생(27.8%)은 여학생(16.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 경험을 한 학생의 85.4%가 자신의 결정에 따른 성 경험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남녀간의 차이는

표 6. 성별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경험 유무와의 관계

태도\성경험 유무\성별	성 별				남 자				여 자				전 체						
	남자		여자		전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 경험				
	남자	여자	전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계			
순결은 결혼시까지 지켜야 찬성한다.	72(56.3)	128(64.3)	200(61.2)	14(19.4)	58(80.6)	3(2.3)	125(97.7)	17(8.5)	183(91.5)	200(61.2)	20(15.6)	30(15.1)	50(15.3)	8(40.0)	12(60.0)	26(86.7)	12(24.0)	38(76.0)	50(15.3)
잘모르겠다	36(28.1)	41(20.6)	77(23.5)	23(63.9)	13(36.1)	12(29.3)	29(70.7)	35(45.5)	42(54.5)	77(23.5)									
반대																			
유의성 검증	$\chi^2$ 값, p value	p=0.0257	$\chi^2=21.040$	df=2	p=0.0000	$\chi^2=26.653$	df=2	p=0.0000	$\chi^2=48.967$	df=2	p=0.0000								
사랑하는사이라면 결혼할 찬성	86(67.2)	65(32.7)	151(46.2)	41(47.7)	45(52.3)	14(21.5)	51(78.5)	55(86.4)	96(63.6)	151(46.2)	16(12.5)	34(17.1)	50(15.3)	2(12.5)	14(87.5)	30(88.2)	6(12.0)	44(88.0)	50(15.3)
가능성이 낮아도 성교할 찬성	26(20.3)	100(50.3)	126(38.5)	2(7.7)	24(92.3)	1(1.0)	99(99.0)	3(2.4)	123(97.6)	126(38.5)									
반대																			
유의성 검증	$\chi^2$ 값, p value	$\chi^2=39.298$	df=2	p=0.0000	$\chi^2=18.117$	df=2	p=0.0000	$\chi^2=19.475$	df=2	p=0.0000	$\chi^2=52.718$	df=2	p=0.0000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경 찬성	50(39.1)	13(6.5)	63(19.3)	25(50.0)	2(15.4)	11(84.6)	27(42.9)	36(57.1)	63(19.3)	25(19.5)	21(10.6)	46(14.1)	5(20.0)	20(80.0)	6(28.6)	15(71.4)	11(23.9)	35(76.1)	46(14.1)
우에 따라서는 성교할 수 있다	53(41.4)	165(82.9)	218(66.7)	15(28.3)	38(71.7)	11(6.7)	154(93.3)	26(11.9)	192(88.1)	218(66.7)									
반대																			
유의성 검증	$\chi^2$ 값, p value	$\chi^2=67.380$	df=2	p=0.0000	$\chi^2=8.444$	df=2	p=0.015	$\chi^2=10.899$	df=2	p=0.004	$\chi^2=52.718$	df=2	p=0.0000						
미혼모가 임신할 경우 그 찬성	37(28.9)	66(33.2)	103(31.5)	12(32.4)	25(67.6)	5(7.6)	61(92.4)	17(16.5)	86(83.5)	103(31.5)	43(33.6)	46(23.1)	89(27.2)	12(27.9)	31(72.1)	2(4.3)	44(95.7)	75(84.3)	89(27.2)
남자와 만드니 결혼해야 찬성	48(37.5)	87(43.7)	135(41.3)	21(43.8)	27(56.3)	12(13.8)	75(86.2)	33(24.4)	102(75.6)	135(41.3)									
반대																			
유의성 검증	$\chi^2$ 값, p value	p=0.115	$\chi^2=2.667$	df=2	p=0.264	p=0.169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중 찬성	13(10.2)	30(15.1)	43(13.1)	2(15.4)	11(84.6)	2(6.7)	28(93.3)	4(9.3)	39(90.7)	43(13.1)	21(16.4)	40(20.1)	61(18.7)	7(33.3)	14(66.7)	6(15.0)	34(85.0)	48(78.7)	61(18.7)
상당수가 해외로 입양된다 찬성	94(73.4)	129(64.8)	223(68.2)	36(38.3)	58(61.7)	11(8.5)	118(91.5)	47(21.1)	176(78.9)	223(68.2)									
반대																			
유의성 검증	$\chi^2$ 값, p value	p=0.240	$\chi^2=2.667$	df=2	p=0.264	$\chi^2=1.821$	df=2	p=0.402											
미혼모가 임신을 하면 찬성	88(68.8)	151(63.2)	239(73.1)	26(29.5)	62(70.5)	5(3.3)	146(96.7)	31(13.0)	208(87.0)	239(73.1)	26(20.3)	31(15.6)	57(17.4)	9(34.6)	17(65.4)	10(32.3)	21(67.7)	19(33.3)	57(17.4)
도시 부모에게 알려 도움	14(10.9)	17(8.5)	31(9.5)	10(71.4)	4(28.6)	4(23.5)	13(76.5)	14(45.2)	17(54.8)	31(9.5)									
을 청해야한다.																			
유의성 검증	$\chi^2$ 값, p value	p=0.365	$\chi^2=9.299$	df=2	p=0.010	$\chi^2=29.162$	df=2	p=0.0000	$\chi^2=26.369$	df=2	p=0.0000								
총 계	45(35.2)	83(64.8)	327(100.0)	45(35.2)	83(64.8)	19(9.5)	180(90.5)	64(19.6)	263(80.4)	327(100.0)									

† 실수(%)

‡ 태도 문항에 답한 총 327명에 대한 분석임

표 6. 성별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경험 유무와의 관계(계속)

태도\성경험 유무\성별	성 별		남 자				여 자				전 체		
	남자	여자	성 경험		성 경험		성 경험		성 경험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피임을 할 수 없다면 성교 찬성 를 하지 않아야 한다. 반대	37(23.9) 45(35.2) 46(35.9)	96(48.2) 77(38.7) 26(13.1)	133(40.7) 122(37.3) 72(22.0)	10(27.0) 8(17.8) 27(58.7)	27(73.0) 37(82.2) 19(41.3)	4( 4.2) 8(10.4) 7(26.9)	92(95.8) 9(89.6) 19(73.1)	14(10.5) 16(13.1) 34(47.2)	119(89.5) 106(86.9) 38(52.8)	133( 40.7) 122( 37.3) 72( 22.0)	$\chi^2=45.115$ df=2 p=0.000		
유의성 검정	$\chi^2=25.928$ df=2 p=0.000		$\chi^2=18.215$ df=2 p=0.000		$\chi^2=12.371$ df=2 p=0.002		$\chi^2=45.115$ df=2 p=0.000						
직업여성의 윤락행위가 성 찬성 범죄를 예방한다 반대	51(39.8) 45(35.2) 32(25.0)	62(31.2) 62(31.2) 75(37.7)	113(34.6) 107(32.7) 107(32.7)	21(41.2) 14(31.1) 10(35.2)	30(58.8) 31(68.9) 22(68.8)	7(11.3) 8(12.9) 4( 5.3)	55(88.7) 54(87.1) 71(94.7)	28(24.8) 22(20.6) 14(13.1)	85(75.2) 85(79.4) 93(86.9)	113( 34.6) 107( 32.7) 107( 32.7)	$\chi^2=45.115$ df=2 p=0.000		
유의성 검정	p=0.510		p=0.277		p=0.087		p=0.520						
성병에 감염된 친구와는 안치 시까지 만나지 않아 야 한다. 반대	6(27.3) 9(32.1) 30(38.5)	16(72.7) 19(67.9) 48(61.5)	4( 9.1) 5( 5.7) 10(14.7)	40(90.9) 82(94.3) 58(85.3)	10(15.2) 14(12.2) 40(27.4)	56(84.8) 101(87.8) 106(72.6)	66(20.2) 115(35.2) 146(44.6)	22(17.2) 28(21.9) 78(60.9)	44(22.1) 87(43.7) 68(34.2)	66( 20.2) 115( 35.2) 146( 44.6)	$\chi^2=24.004$ df=2 p=0.000		
유의성 검정	p=0.581		p=0.169		$\chi^2=10.497$ df=2 p=0.005		$\chi^2=24.004$ df=2 p=0.000						
어떠한 경우에도 미혼남녀 친성 가 장기간 같이 여행을 하 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반대	7(31.8) 1( 7.7) 37(39.8)	15(68.2) 12(92.3) 56(60.2)	2( 5.9) 1( 5.6) 16(10.9)	32(94.1) 17(94.4) 131(89.1)	9(16.1) 2( 6.5) 53(22.1)	47(83.9) 29(93.5) 187(77.9)	56(17.1) 31( 9.5) 240(73.4)	22(17.2) 13(10.2) 93(72.7)	34(17.1) 18( 9.0) 147(73.9)	56( 17.1) 31( 9.5) 240( 73.4)	$\chi^2=24.004$ df=2 p=0.000		
유의성 검정	p=0.071		p=0.558		p=0.091		p=0.943						
총 계	45(35.2)	83(64.8)	19( 9.5)	180(90.5)	64(19.6)	263(80.4)	327(100.0)	128(39.1)	199(60.9)	327(100.0)			

† 실수(%)

‡ 태도 문항에 대한 총 327명에 대한 분석임

거의 없었다. 이는 과거보다 성 경험과 혼전순결, 혼전 동거에 대해 상당히 과거보다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김(1994)의 근로청소년 대상연구에서 평균 연령은 21.4세로 성교경험은 50%(남자 78.1%, 여자 21.6%)로 일반 대학생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며, 피임방법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여 남자 16.0%, 여자 8.2%였다. 여성의 경우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가 39.7%가 피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고, 22.4%가 미리 준비가 안되어서, 19.5%가 피임기구를 쓰는 것이 쑥스러워서였다. 남성의 경우 성교시 음주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임을 하지 않은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임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표 7).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교 경험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한 연구소 조사한 바로는 여학생의 경우 동료(peer group)로부터 성 경험에 대한 압력을 받지는 않지만, 남학생의 경우 결혼 전에 성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친구들로부터 여학생보다 많은 압력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학생은 성적 충동을 조절 할 수 있지만, 남학생은 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와 성교육을 할 때 사회적인 문제, 즉 동료집단의 압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질 필

요가 있겠다(De Gaston, 1996).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행위와 자존감(self-esteem)을 조사한 연구에서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가 55%이며, 성병을 앓은 경험은 6%, 임신한 경험은 7.8%였다. 성교 경험이 있는 여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자존감이 낮았고,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차이가 없어 남녀간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성병을 가진 병력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존감이 낮게 나왔다(Orr DP, 1989). 따라서 성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주 빈도별 성 경험은 음주 빈도가 많을수록, 즉 매일 술을 먹는 남학생의 76.9%가 경험이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성 경험의 정도가 높았고, 남자의 경우 특히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chi^2=21.6$  df=4 p=0.000), 이는 성교시에 피임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뉴질랜드의 의과대학에서 953명의 16세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음주와 성교 행위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음주를 한 경우 일수록 성교 경험의 시기가 빨랐으며,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23배나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알코올의

표 7. 성과 관련된 경험

성과 관련 된 경험	본 연구	김(1993)	신(1994)	안(1995)	류(1995)	구(1997)
	전체(남자/여자)	전체(남자/여자)			전체(남자/여자)	전체(남자/여자)
성교	20.9(37.3/10.0)	31.7(43.7/7.0)	17.7(-/-)	-(-/23.0)	27.6(40.4/14.7) 1학년(11.4) 2학년(26.8) 3학년(34.5) 4학년(37.1)	18.0(27.8/6.0)
성교 회수	1-2회 28.6(22/45)	1-2회 32.0(32.3/27.3)	-	-	1회 14.1(13.3/16.3)	-
	3-5회 40(42/35)	3-4회 15.3(16.5/0.0)	-	-	2-5회 27.6(27.5/27.9)	-
	5-10회 11.4(14/5)	5회 이상 52.7(51.1/72.7)	-	-	5-10회 14.7(17.5/7.0)	-
	10회 이상 20(22/15)	-	-	-	10회이상 40.4(40.0/41.9)	-
키스경험/ 신체적애무	-	49.6(59.1/30.1)	-	-	29.5(25.5/33.6)	41.9(38.0/46.6)
손잡기	-	-	-	-	25.1(25.2/25.0)	25.3(21.4/33.3)
페딩	-	-	-	-	10.2(10.4/9.9)	-

† 수치는 %임

잘못된 사용은 조기 성교 경험을 하게 만드는 위험요소 중의 하나임과 동시에, 또한 피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하였다(Fergusson DM, Lynskey MT, 1996; Bailey SL, 1999).

최초 성 경험의 시기는 남자는 대학 재학 때에 40%, 여자의 경우는 60%, 남녀 모두 합한 전체를 살펴보면 대학에 입학해서 약 9개월 사이에 첫 성 경험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초 성교 경험의 시기를 늦추거나 성교경험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청소년 성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모든 성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이 성 위험 행위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은 조기 성교 경험을 늦출 수 있고, 성교 횟수와 섹스 파트너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피임방법의 사용, 특히 콘돔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병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Kirby D, 1994). 사회적 규범이나 동료집단의 압력, 매스컴의 영향, 등도 혼전 조기 성교경험의 원인이 되지만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가정 내에서의 성교육은 그들의 성행위나 조기 임신, 유산 등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Yang M, 1995)

그러므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 입학 초기에 대학 내에서의 성교육 강좌나 특별강좌를 개설하거나 상담실을 활성화 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교나 대학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시도하는 것도 점차 증가하는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다.

영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와 태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들이 위험한 성행위로 인해 임신이나 성병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는데 본인은 물론 사회적 통념 등으로 인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양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행위의 유발 요인으로 동료집단의 압력과 의사결정 과정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성에 대한 태도와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사이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음도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성장

발달단계에 알맞은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Burack R, 1999).

## 2. 성 지식 수준 및 성 지식 습득 경로

본 연구대상자의 성 지식 수준은 평균 정답률이 45.8%였고, 성 지식과 성 경험 유무를 보면, 성 지식의 상위군에서 성 경험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았으며, 불교 종교를 가진 학생이 성 경험이 가장 많았다.

대학생 대상의 연구(성, 1996)에서 본인이 지각하는 성에 관한 지식 수준은 보통이다가 50.3%, 잘 알고 있다 37.8%, 잘 모른다 12%로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류(1996)의 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14.5%, 많이 알고 있는 편이다 25.9%, 보통이다 54.6%, 모르는 편이다 4.7%,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0.4%로 본인들이 지각하는 지식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제 성에 관한 10문항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표 8).

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가운데, 성 지식을 얻는 경로가 공식적이기보다는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가장 높으며(류, 1995; 공, 1992), 그 외 매스컴이나 음란비디오 등을 통한 단편적이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습득된 것이 많아,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식보다는 불확실하고 왜곡된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학교나 다른 단체의 성교육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성교육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계적이지 못한 경로를 통한 성 지식의 습득으로 형성된 성 윤리관이나 도덕관은 혼동을 거듭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심화되어 정신건강과 건전한 사회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성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여러 연구(이,1990; 김, 1993; 김,199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성행위의 조기 경험과 빈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

표 8. 성 지식 습득경로

성 지식 습득 경로	공(1992)	김(1993)	류(1995)	이(1996)
책이나 잡지	8.9	37.4	38.5	7.8(신문)
친구나 선배	35.1	21.6	69.7	-
선생님	-	4.0	-	-
부모	2.7	0.4	2.4	-
TV/Radio	-	2.8	42.2	31.9/1.2
학교나 다른 단체의 성교육	25.3	-	10.9	-
형제나 자매	-	-	2.2	-
음란비디오나 대중잡지	27.3	-	23.9	59.1

†수치는 %임

‡류(1995)의 수치는 복수 응답임

요하다.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 경험이 적으므로, 정확한 성 지식을 주어 그들의 성에 대한 인식, 가치관, 태도 등을 올바르게 갖게 하고 바람직한 성적 적응을 하게 해야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61.1%(남자: 36%, 여자: 64%)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하였고, 남녀 모두 혼전순결에 반대할수록 성 경험을 많이 하였다. 이는 류(1995)의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할 가능성이 낮아도 성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 경험이 많았다. 특히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성교할 수 있다는 항목에 찬성할수록 성 경험이 많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세배 이상 높았다.

공(1992)의 연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전 성행위가 가능하냐의 질문에 여학생의 88%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이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도 여학생의 90% 이상은 여성의 정숙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개방된 성 의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75%의 여학생이 지켜야한다고 보고 있어 실제 행동과 관념사이의 간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학생은 54.8%가 혼전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애정 없는 사람과의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0.4%였다. 이러한 경향은 군대를 다녀온 학생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성, 사랑, 결혼이 각각 분리된 영역이라는 의식을 보여주며, 남성에게서 성은 인격체의 결합이 아닌 단순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장필화, 1991). 또한 남성들은 본인과 직접 연관되는 여성에 대하여는 지극히 보수적이면서, 여타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며, 때

로는 무책임한 태도를 공공연히 취하는 이중적인 성규범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여학생은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성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 한다. 따라서 대학생에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성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도덕이나 성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사회제도나 심리적인 측면도 포함되어야 한다.

김(1993)의 연구에서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35.6%였고,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집단에서 키스경험, 자위행위, 성교경험 등 성과 관련 행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류(1995)의 연구에서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가 남녀 학생 간의 차이가 있었고, 남자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10.2%로 낮았으며, 여자는 혼전순결을 남녀 모두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남자에 비해 높았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4배 이상 혼전순결에 대해 전통적이며 보수적이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가 점차 개방적이 되었다.

구(1997)의 연구에서는 39.0%가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대답해 과거보다 혼전순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27.5%, 여학생의 52.0%가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응답해 남녀간의 차이는 여전히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와 결혼 내에서만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경우는 57.4%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42.6%로 성과 결혼을 반드시 연결시키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폭력 경험이 남학생의 6.1%, 여학생의 4.9%가 있다고 하였는데 성폭력의 가해자는 이성친구가 31.5%, 선배가 21.7%로 전체 피해자의 53.4%가 이성친구나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대학 내에서 존재하는 폭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 경험에 대해서

는 자신의 결정이므로 후회하지 않는다가 73.8% 였다 (표 9).

**4. 성교육**

1) 성교육 요구 내용

대학생들이 알기 원하는 교육내용은 올바른 성 지식과 성 행동,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지만 성 충동 해소 방법, 임신, 피임방법이나 성병의 증세, 치료, 예방 등 성적 행동으로 인해 책임감이 수반되는 내용들이다.

성 고민의 가장 큰 내용은 남학생의 경우 성 관계하고 싶은 충동 때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신체적 매력이 없어서, 사회가 성 문제에 폐쇄적이어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성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의 순서로 가장 높았다. 여학생은 신체적 매력, 유방의 크기, 외모나 성적 매력으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 성 가치관에 대한 고민 등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류진혜, 1995: 김상태, 1995: 김, 1993). 한편 김(1994)의 연구에서는 성교육 내용의 요구가 성병과 AIDS에 관한 내용이

가장 높았다.

류(1995)의 조사에서는 남녀의 성행위 기법(40%), 성기나 성 기관의 정상여부(21.7%), 생식작용(10.5%), 성병(5.4%) 등을 가장 알고싶다고 하였다. 보건 사회연구원에서 1985년 개설한 '청소년을 위한 성 상담 전화' 이용자의 상담내용을 1985년 6월부터 86년 5월까지 1년간 내용 분석한 것에 의하면 성적충동 41.1%, 신체변화와 건강 23.1%, 원치 않은 임신 9.2% 등의 순서이며 그 중 신체변화와 건강문제의 범주에는 성병에 관한 것이 32.3%를 차지했다(김, 1988). 김(1987)의 성 상담 전화를 분석한 석사논문에서도 85년 2학기 중 남자의 경우 가장 많은 상담을 한 것은 성에 관한 지식 및 호기심과 성적충동이 많았고, 건강 및 신체구조에 관한 순서로 많았으며 이중 신체구조에 관해서는 성기크기로 고민하는 문제가 많았다. 성병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남자 상담전화자 중 42.9%나 되어 현명한 육구 처리 방법과 성병에 관한 예방책이 요구된다. 여자는 성에 관한 지식 및 호기심, 성교, 원하지 않는 임신, 성적충동의 순서로 많았다. 86년 1학기 상담내용은 남자는 성적충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 9.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	본 연구		공(1992)		김(1993)		김(1994)		류(1995)		안(1995)		이(1996)		구(1997)	
	전체 (남자/여자)	남자/여자	전체 (남자/여자)	남자/여자	전체 (남자/여자)	남자/여자	전체 (남자/여자)	여자	남성 순결	여성 순결	전체 (남자/여자)	남성 순결	여성 순결	전체 (남자/여자)	남성 순결	여성 순결
반드시 지켜야한다	17.4 (12.5/20.6)	6.3/19.9	35.6 (28.3/50.6)	54.5/73.9	29.2 (10.2/40.3)	36.0	-	39.0 (27.5/52.0)								
지켜야 한다	43.7 (17.1/26.6)	38.9/56.0	-	-	-	-	71.9/76.7	-								
잘 모르겠다	15.3 (6.1/9.2)	-	6.8	-	-	-	-	-								
지키지 않아도 됨	20.5 (22.7/19.1)	43.3/23.2	-	45.5/1.5	-	4.0	-	44.1 (51.8/35.3)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	3.1 (5.5/1.5)	11.5/0.8	6.3 (7.9/3.2)	-	-	-	11.0/8.4	2.7 (2.9/0.3)								
상황에 따라 다름	-	-	51.3	-/23.6	-	-	-	-								
결혼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46.1 (67.2/32.6)	-	-	-	35.9 (41.8/30.0)	54.0	-	-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교할 수 있다	19.3 (39.0/6.5)	-	-	-	-	-	-	-								
결혼할 사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무방함	-	88.0	-	83.4/14.3	17.4 (22.9/11.7)	5.0	-	28.5 (37.3/18.6)								

† 수치는 %임

성에 관한 지식 및 호기심이었으며, 여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가장 많았으며, 성에 관한 지식 및 호기심의 순서였다. 그러므로 남자는 성적충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하며, 여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신에 대해 해부 생리적인 면 뿐만 아니라 성의 주체의식, 가족, 책임감, 윤리적인, 임신한 이후의 해결방안까지 고려하여 성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약 70%)이 친구나 선배와 같은 또래 집단과 의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그 외 잡지를 통해서나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며, 학교 상담실(2.7%)이나 교수(0.3%)와의 상담은 극히 낮았다(김, 1993; 류, 1995). 그러므로 성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상담가와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의 상담실이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홍보나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성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닌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에 관한 의문과 처리에 관해 자연스럽게 지도해야 한다. 대학생의 성교육의 불만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며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으로 너무 원론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김, 1988). 대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성에 대한 태도나 행위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기존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다(김태훈 1998). 김(1995)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성교육에 대해 만족을 표현한 남학생은 6%였고, 여학생은 10%로 만족의 정도가 매우 낮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성교육의 수준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4.5%로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받은 성교육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며, 단편적 성 지식으로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41.8%), 형식적 성교육으로 도움이 안되었다(38.5%)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83.5%의 학생이 느끼고 있어, 다수가 성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 2) 성교육 방법

WHO(1986)는 성교육이 성에 관계된 행위에 있어 정서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인 모든 면이 통합되어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풍부해지고 개인의 인격, 의사소통 및 사랑을 증진시키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성교육의 목적은 신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성 지식 교육과 성에 대한 명확한 가치 및 태도를 가지게 돕는 것과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로 인한 여성 소외, 남성의 권위적인 태도 등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차별 극복을 위한 교육이다. 인간에 대한 바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성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성교육은 개인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면을 고려하여 대학생을 사회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성에 관한 지도는 단순한 성 지식의 전달이나 성 심리, 성적 규범, 성도덕 등만을 이해시키는 데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격 속에 건전하고도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 및 자각을 길러 사회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한다. 더불어 성의 문화나 사회적 풍조가 지닌 뜻을 이해시키고 성 정보에 대한 비판력과 선택능력을 길러주어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성의 가치관을 확립시키도록 해야 한다.

성에 대한 개념이 여학생은 성을 남성과 여성의 구별로 보는 반면 남학생은 성행위로 보는 경향이 높다. 성에 대한 지배적인 개념은 남성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성에 대한 개념이 협소하였던 것은 성의 생물학적 특성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성은 성교나 성행위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성교육은 성행위 중심의 편협한 성 개념에서 벗어나 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행위 뿐 아니라 인체의 생리 해부적 구조나 임신, 출산, 양육 등과 이런 행위를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나 심리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교육해야 한다(공미혜, 1992).

성교육의 가장 핵심은 책임 있는 성 행동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성교육 방법으로는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강사를 통한 정기적 특강이나 성교육 과목을 정규 교양과정에 포함시켜 교육내용도 피상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되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각 대학마다 있는 상담실을 전문성을



갖추어 활성화하여, 항상 고민거리를 상담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야 하며, 익명의 보장이 두려워 상담을 기피할 경우는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각 대학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대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성교육은 한두번 실시로 끝나면 안되며,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여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되 반드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대학생에게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사회가 공동 책임감을 가지고 성에 대한 바람직한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에 관한 문제는 학생 본인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되어 문제가 유발되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하여 대학과 가정, 사회 그리고 학생을 연결하는 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대학이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사회규범과 질서를 바꾸고 있으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성 의식은 기존 전통적 성 가치관에 매달려 있어 사회의 변화 속도와 일반적인 성의식 사이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대학생들이 낡은 것과 새로운 변화 사이에 갈등하고 혼돈하며 옳고 그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며 성교육이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임을 중시하여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적 성교육이 확대, 실시되어야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와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경험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고 성 지식, 성 태도,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20.9%가 성 경험이 있었고, 남자는 37.3%, 여자는 10.0%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최초 성 경험 시기는 대학 때 45.7%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 40%, 여자 60%이었고, 다음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성행위시 피임 실시 여부를 보면 남자의 34.0%, 여자의 45.0%가 피임을 하지 않는다

고 하였고, 남녀 모두 20%가 피임을 한다고 하였다..

둘째, 종교별 성 경험을 보면, 불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이 가장 많았고, 기독교, 천주교 순서로 경험이 있었으며, 거주형태별 성 경험 정도는 남녀 모두 부모와 따로 거주 할 수록 성 경험의 정도가 높았다. 자위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남녀 모두 성 경험이 많았다. 음주빈도가 많을수록 성 경험의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성 지식 수준과 성 경험 유무를 보면 성 지식의 상위군에서 성 경험의 정도가 10%로 가장 낮았고, 중위군에서 가장 높았다.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경우 상위군이 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천주교, 불교의 순 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의 성 지식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문과계열이고, 이과계열 학생이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형제 수가 많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넷째, 성 경험 유무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가 전체 61.1%(남자: 56.3%, 여자: 64.3%)로 이에 찬성하는 경우 8.5%가, 반대하는 학생의 45.5%가 성 경험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할 가능성이 낮아도 성교할 수 있다는 것에 찬성할수록 남녀 모두 성 경험이 많았고 (남자 :47.7%, 여자 21.5%),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성교 할 수 있다는 문항에 찬성할수록 남녀 모두 성 경험이 많았는데 남자의 50.0%, 여자의 15.4%로 남자가 여자보다 세배 이상 높게 나와 남녀간에 성교에 대한 감정의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초의 성 경험 시기가 대학 시절에 가장 많으므로 대학이전에 성교육의 체계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시절에 이성문제나 성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대학시절에 성에 대한 정규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경험이 낮으며,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 경험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지식을 길러주고,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성교육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실제 전문적 교육자의 양성은 미비한 실정으로 전문가 양성 교육이 요구된다.

기존 성교육의 내용이 보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피

교육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하여, 공식 교육 속에서의 제대로 된 성교육이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잘못된 성 지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피교육자의 실제적인 성 지식 수준과 흥미에 입각한 성교육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각 발달단계에 알맞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질 필요가 있다. 성교육은 강의식보다는 다양한 교육자료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말해줄 필요가 있고,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성교육 내용도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성관계, 성 충돌 해소 방법, 임신, 피임 등 성적으로 인해 책임감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성 지식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즉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통합적 내용과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공미혜: 은폐된 성, 가장된 성: 대학생들의 성 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 제4집, 27-47, 1992.
2. 구은숙: 대학생의 성 의식 조사 연구,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9집, 49-63, 1997.
3. 김경희, 남선영, 지순주, 권혜진, 정연강: 남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9권 제1호, 1996.
4. 김송자: 청소년 성교육 문제 연구, -상담전화를 통해 본 청소년이 성실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5. 김주연: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6. 김상태: 청소년, 대학생의 성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생활연구 제13호,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995.
7. 김태훈: 주간조선, 앞서가는 청소년, 쫓아가는 성교육, 46-47, 1998.
8. 김한경: 남녀 근로 청소년의 성행태 비교 연구, -성교육 방향제시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논총 제7호, 12월, 1994.
9. 김한경, 남정자, 한혜경: 한국 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10. 김화자, 남선영, 정연강, 박경숙: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관한 인식과 성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8권, 제2호, 233-244, 1995.
11. 류진혜, 강제연, 김재환: 대학생의 성에 대한 실태 조사, 대학생활연구, 제13호,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995.
12. 성한기: 대학생들의 성 의식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논문집, 52, 207-229, 1996.
13. 신영희, 홍영혜: 부산 및 울산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조사, 대한간호학회지 제26권 1호, 1994.
14. 안명옥: 여성의 성교육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지, 제38권, 제2호, 1995.
15. 이병우: 현대 대중매체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6. 이은정: 교고생과 교고생 학부모의 성 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권, 제1호, 1990.
17. 장필화: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 되기,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1991.
18. Bailey, S. L., Pollock, N. K., Martin, C.S. and Lynch, K. G.: Risky sexu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s,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Sep: 25(3): 179-81, 1999.
19. Burack: Teenage sexual behavior: attitudes towards and declared sexual activity, Br. J. Fam. Plann, Jan: 24(4): 145-8, 1999.
20. De Gaston, J. F., Wees, S. and Jensen, L.: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xuality, Adolescence, Spring: 31(121): 217-31, 1996.
21. Fergusson, D. M. and Lynskey, M. T.: Alcohol misuser and adolescent sexual behaviors and risk taking, Pediatrics, Jul: 98(1): 91-6, 1996.
22. Jerslid, A. T.: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Macmillan, New York, 1957.
23. Karen Glanz, Frances Marcus Lewis, etc.: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2nd edition, Jossey-Bass Publishers, 1996.
24. Kirby, D., Short, L., Collins, J., Rugg, D., Kolbe, L., Howard, M., Miller, B., Sonenstein, F. and Zabin, L. S.: Schoolbased programs to reduce sexual risk behaviors: a review of effectiveness, Public Health Reports, May-Jun: 109(3): 339-60, 1994.
25. Orr, D. P., Wilbrant, M. L., Brack, C. J., Rauch, S. P. and Ingersoll, G. M.: Reported sexual behaviors and self-esteem among young adolescents, Am. J. Dis. Child, Jan: 143(1): 86-90.
26. WHO: Reproductive Health in Adolescence Position Paper, MCH Division of family, Health Geneva, Switzerland, 1986.
27. Yang, M.: Adolescent sexuality and its problems, Ann Acad Med Singapore, Sep: 24(5): 736-40, 1995.